

위험천만 연말연시 고속도로 음주운전 꼼짝마!

인천경찰청, 내년 1월까지 단속

인천경찰청이 각종 모임과 이동량 증가로 음주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연말연시에 도로관리청과 합동으로 고속도로 집중 음주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천경찰청 고속도로내 음주사고 건수(부상자)는 11월 말 기준 ▲2024년 78건(128명) ▲올해 51건(81명)으로 전년 대비 35%(27건)(부상자 37%(47명)) 감소했으나 해마다 연말연시에 다소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2025년 12월1일~2026년 1월31일)을 운영, 음주 사고에 대한 선제적 관리에 나섰다.

12~1월 평균 음주사고 ▲2023년 7건(월평균 5건 대비 40%) ▲2024년 7건(월평균 6건 대비 17%) 특별단속 기간 중 목·금·토요일에는 고속도로소속대와 인천청 모든 경찰서(10개서)가 일제히 집중단속을 전개하며 고속도로순찰대는 매일 상시 단속 및 주 1회 도로관리청과 합동단속까지 병행해 고속도로내 음주운전 위험요인을 빈틈없이 차단할 방침이다.

한창훈 인천경찰청장은 "고속도로내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연말연시에 단속 강도를 한층 더 높여 국민이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고속도로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윤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군포시, 경기 희망 에코마을 완공

태양광 방음판·저탄소물레길 조성

경기 군포시가 2021년부터 삼성마을 일원을 대상으로 추진해온 '경기 희망 에코마을 조성사업'을 지난 11월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시는 ▲환경친화적 해결 기반의 RE100 연계 ▲시민참여형 거버넌스 구축 ▲외부재원 확보에 집중해 사업을 전개했다.

핵심 사업은 총 네 가지로, 먼저 대야지하차도 방음터널에 화재안전성이 강화된 태양광 일체형 방음판을 설치해 소음 저감과 전력 생산을 동시에 실현하는 융복합 환경기술을 적용했다.

또한 도로 소음으로 민원이 많았던 구간에 삼성지하차도 방음터널을 신규 설치했다. 골프장 물레길에 밭밭자갈로, 태양광 가로등, 미세먼지 측정 퍼즐러 등을 설치하는 저탄소체험물레길을 조성했다.

군포=송윤근 기자 ygs@siminilbo.co.kr



위험시설물 긴급 복구 협약

서울 강서구가 지난 15일 폭설, 수해와 같은 자연재해에 보다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현대건설과 민간위험시설물 긴급 복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은 진호준 구정영(왼쪽)이 김태희 현대건설 건축사업부장과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

경기도, 133억 투입 포천시 고모천 4.1km 정비... 2027년 말 완공

홍수 대응 능력 강화... 수변공원·산책로 조성도

경기도는 포천시 고모천의 홍수 대응 능력 강화와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 '포천 고모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올해 12월 공사를 시작해

2027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천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고모천은 포천시 소흘읍 고모리 일원에서 발원해 포천천으로 합류한 후 한탄강으로 방류되는 포천천 수계의 주요 지류다.

강우시 유량 변동이 커 인근 지역의 침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정비사업은 포천시 소흘읍 고모리에서 가산면 일원까지 총 연장 4.1km 구간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하천 제방 1.26km 보강을 통해 고모천의 홍수 대응 능력을 우선

개선하고 하천 유출지를 활용해 수변공원과 산책로를 조성해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도비 133억원으로 ▲공사비 72억원 ▲보상비 46억원 ▲감리비 10억원 ▲설계 및 기타 비용 5억원 등이다.

민정=윤찬식 기자 mjh@siminilbo.co.kr

종로구 "버스는 공공재"... 교통약자 지원 무료 셔틀버스 1일 3회 운행

오늘부터 버스교통비 첫 지급

이동·청소년·청년·노인 혜택

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버스를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닌 '모두를 위한 공공재'로 선언하고 이동권 보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구는 장애인과 노약자 등을 위해 39인승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교통약자 지원 무료 셔틀버스'를 하루 3회씩 운행 중에 있다

노선은 종로구 동남쪽 참신동에서 시작해 북서부 평창동까지를 순환하며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30분 총 50개 정류소를 경

유한다.

버스는 교통 시작지대를 연결하는 물론, 주요 문화시설(종로·탑골공원 등)과 행정기관(구민회관·보건소 등)을 포괄해 편의성을 크게 높이고 있다.

2025년 10월 기준 1회 평균 이용객은 79명이고, 1일 평균 이용객은 237명이다.

특히 구는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차를 발주하고 지난 15일 이를 가납하는 시승식을 가졌다.

구에 따르면 이날 정문헌 구청장은 무료 셔틀버스 탑승 현장에 찾아 교통약자의 승하차를 지원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하며 향후 종로구 교통 정책의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한편 구는 2025년 9월1일부터 '버스교통비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아로부터 청년, 노인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교통체계를 구축해 주민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고 삶의 질을 높이고 있다.

대상은 종로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6~12세 아동, 13~18세 청소년, 19~39세 청년, 65세 이상 노인이다.

신청은 교통카드,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종로구 교통비 지원신청 사이트를 통해 하면 된다. 지원금은 분기별 교통카드 이

용 내역을 정산해 계좌로 환급하며, 한도는 분기당 노인·청년 6만원, 청소년 4만원, 어린이 2만원이다.

연간 최대 각각 24만원, 16만원, 8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종로 뿐만 아니라 서울 전역에서 운행하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혜택을 제공한다. 종로구는 이달 18일 첫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정문헌 구청장은 "버스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 공공재라는 믿을 아래, 이동권 시작지대 해소와 주민 중심의 실용성 있는 서비스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의정부시, 폐수배출시설 위반 6곳 적발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조치

경기 의정부시가 지역내 폐수배출시설 120여곳을 대상으로 '2025년 폐수배출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해 수질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업장 6곳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시민의 건강과 깨끗한 수질 환경을 지키기 위해 추진한 연간 계획의 일환이다.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을 근절하고 사업장의 자발적인 환경 관리를 유도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점검 사항은 ▲폐수 무단 방류 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운영일지 기록·보존 상태 등이다.

위반 시설은 ▲배출허용기준 초과 2곳 ▲운영일지 미작성 2곳 ▲환경기술인 교육 미수료 1곳 ▲변경신고 미이행 1곳 등 총 6곳이다.

시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행정처분(경고·개선명령)과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끄는 지도·점검을 통해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사업장들이 환경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깨끗한 물 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과 사업장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민정=윤찬식 기자 mjh@siminilbo.co.kr

하이테크밸리 공공폐수처리비 지원

기업 부담 톤당 2500~1500원 인하

구미시, 내년부터 2년간 적용

경북 구미시가 하이테크밸리(구 미국가 제5단지) 입주기업의 오·폐수 처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국수자원공사(K-water)와 협력해 2026년부터 2년간 공공폐수처리시설 처리비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기업이 부담하던 처리비는 톤당 2500원에서 1500원으로 낮아져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하이테크밸리는 낮은 초기 입주율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폐수 유입량 부족 문제가 심화됐다. 처리량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면 단가가 상승하는 구조적 특성 때문에 입주기업의 부담이 과도하게 커졌고, 이는 기업 활동 전반에 영향을 미쳐 왔다.

시는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K-water와 1년여 동안 세부 지원 방안을 논의해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시의 지원 금액은 약 9억원으로 2년간 부담한다. 이는 연간 전체 오·폐수 처리비의 25%, 4억5000만원 규모다.

이번 재정 투입으로 입주기업들은 안정적인 비용 구조를 확보하고 법인 운영·연구개발·인력 투자 등 본연의 경영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게 됐다.

구미시의회도 기업 애로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적극 협력했다.

시의 의회의 공조가 실제 현안 해결로 이어지며 기업 지원의 모범 사례가 구축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구미=백병자 기자 pbs@siminilbo.co.kr

폭설·도로 결빙 대응 훈련

인천 서구, 교통대란 최소화

인천 서구는 겨울철 폭설과 도로 결빙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재난 발생시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해 지난 16일 결빙 취약 구간에서 결빙과 합동 훈련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

특히 이번 훈련은 경찰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도로 결빙으로 인한 교통대란을 최소화하고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문제 대응 능력 향상에 중점을 뒀다.

이번 합동 훈련은 ▲재난 발생

에 따른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 보고 및 전파 체계 확립 뿐만 아니라 ▲도로 결빙시 유관 기관 간의 역할 분담과 대응 절차를 숙달시키고 ▲현장 합동 훈련을 통한 위기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구는 이번 합동 훈련을 통해 폭설 및 도로 결빙 발생시 초동 대응 시간이 단축되고, 기관 간 역할 분담을 줄여 실질적인 위기 대응 능력이 대폭 향상됐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서구민이 안심하고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로 제설 작업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인천=윤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중심을 잡습니다 핵심을 전합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는
국내외 최대 취재망을 통해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다양한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균형잡힌 언론의 시작은
언제나 연합뉴스입니다.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